韓國心理學會誌:社會問題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Social Issues
1995 Vol. 2 No. 1, 33~51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1)]

나 은 영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압력이나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생각과는 달리 행동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방해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가운데, 특히 유교문화권의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모델에서 신념 및 태도와 함께 행동의도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본 체면유지(face saving) 압력과 집단동조(group conformity) 압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체면유지 압력은 유교문화에, 집단동조 압력은 집단주의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언급한 다음, 호화혼수와 촌지 문제에 관한 대학생들 및 성인들 대상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밝혀진 점은 (1) 체면과 동조 때문에 생각과는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2) 호화혼수 문제에서는 동조보다 체면이, 촌지 문제에서는 체면보다 동조가 행동의도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권위주의적이며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예: 구세대 또는 남성)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요구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효과적일 것이고, 동조에 약한 사람들(예: 신세대 또는 여성)의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도록 제도나 법규를 바꿈으로써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식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신념 변화와 함께 문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구세대는 전통문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예: 권위주의, 비합리적 사고방식, 허례허식)에 얽매이지 말고 외래문화의 바람직한 가치(예: 합리적인 생활태도, 공사의 구분)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세대는 외래문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예: 윤리적 타락, 물질주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바람직한 가치(예: 부모에 대한 효성, 상부상조의 정신)에 눈을 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얼마 전 태풍 속에서 제주 공항에 착륙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그 후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가 나왔다:

> 일사불란한 조직사회와 자유분방한 개인주의 사회, 둘 중 어느 쪽에서 항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1) 본 연구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의 1994년도 연구비 지원에 힘입어 이루어진 것임.

높을까. 얼른 떠오르는 대답은 후자 쪽일 듯 싶다 그러나 실제 사고는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빈발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 .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결정권과 책임을 1인자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 . 기장이 OK한 상황에서 다른 승무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된다. . .반면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을 지는 경향이 강하며,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면 상급자에게 스스럼없이 문제를 제기한다. 사고를 향해 치닫던 연쇄고리가 어디선가 끊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 조선일보 ('94.8.23. p.7)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예: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권위주의)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변의 사회적 압력이나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생각과 달리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하여, 우리가 의식개혁 문제를 다룰 때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와 문화의 어떤 요인들이 장애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의식개혁의 사회심리학적 정의

의식개혁의 가장 단순한 사전적 의미는 '의식'을 '개혁'하는 것, 즉 '사람의 생각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이다. 사회심리학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 여기에 가장 가까운 것은 **태도변화**, 즉 **'태도(attitude)'를 '변화(change)'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태도라는 개념 안에 태도대상에 대한 인지적인 정보(예: 담배는 몸에 해롭다)와 감정적인 평가(예: 나는 담배가 싫다),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행동(예: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까지를 모두 포함시켜 왔으나(e.g., Rosenberg & Hovland, 1960), 최근에는 이 중에서 '감정적인 평가'에 초점을 둔 정의가 유행하고 있다(e.g., Eagly & Chaiken, 1993; 나은영, 1994 참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의식개혁이라고 말할 때의 '의식'은 오히려 태도의 인지적인 측면, 즉 '신념(belief)'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신념과 태도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되, 전자는 인지적인 측면을, 후자는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관점을 따를 것이다.

사회심리학에서 태도의 변화 과정은 흔히 (1) 설득 메시지에 의한 태도변화, (2) 집단압력에 의한 태도변화, 그리고 (3) 행동 유도를 통한 태도변화로 나뉜다. 단순하게 이것을 그대로 의식개혁 문제에 적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지하철을 탈 때에는 줄을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1)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도록 설득하는 내용의 글을 읽게 할 수도 있고 (설득 메시지), (2) 너도 나도 모두 줄을 서서 줄을 서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고 (집단 압력), 끝으로 (3) 강제로 줄을 서는 행동을 먼저 하도록 함으로써 줄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행동 유도).

그러나 실제의 의식개혁 문제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이 단순한 '생각'의 변화 이상의 것을 뜻한다는 점이다. 의식개혁은 행동변화를 수반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질서의식이니 참여의식이니 하는 말을 할 때 사실은 질서행동이나 참여행동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cf. 차재호, 1994).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태도변화는 진정한 의식개

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식개혁을 행동변화를 수반하는 태도 및 신념의 변화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태도-행동의 비일관성

사회심리학에서 (어떤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사회적 행동을 예언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대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태도를 알면 그 태도와 일관된 행동이 나올 것이라고 암암리에 가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사회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가정은 옳지 않다.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약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개관논문 중 대표적인 것은 Wicker(1969)의 논문이다. 그는 태도-행동 간 관계를 연구한 42편의 논문들에서 태도와 행동 간의 평균 상관계수가 약 .15 정도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 주고, 태도와 행동은 "관련성이 없거나 아주 약하게만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p.64). LaPiere(1934)의 연구 이래로 태도와 행동의 비일관성 문제는 줄곧 사회심리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McGuire(1986)는 태도-행동 간의 낮은 상관관계를 사회심리학의 스캔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p.92).

여기서 의식개혁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태도-행동의 비일관성 때문에 의식의 변화, 즉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의식개혁을 원한다면 단순한 태도변화나 신념변화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식의 변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행동 예언 상황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모델을 의식개혁 문제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3. 행동의도 모델의 적용

(1) 기본 모델 (Fishbein & Ajzen, 1975)

행동의도 모델은 '합리적 행위 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이 모델에서 특이한 개념은 태도와 행동 사이를 연결해 주는 '행동의도' 개념이다. 원래 Fishbein과 Ajzen(1975)이 처음 제안했던 모델에서는 행동의도를 예언하는데 중요한 두 변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가정하였다(그림 1 참조). 행동에 직접 연결되는 예언변인은 행동의도이며, 이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것은 태도와 규범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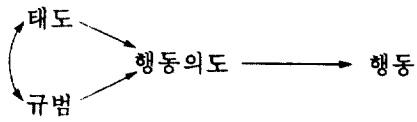


그림 1. Fishbein과 Ajzen(1975)의 기본 행동의도 모델

이 이론에서 말하는 태도란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이다. 이 '행동에 대한 태도'는 (1)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과 (2) 그 결과에 대한 평가의 함수로 결정된다. 그리고 규범은 '주관적 규범'으로서, (1) 자기에게 중요한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신념과 (2)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르려는 동기의 함수로 결정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 참조). 이 이론이 흥미로운 점은 행동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태도'라는 개인적 요인 뿐만 아니라 '규범'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첨가하였다는 점이다. 즉, 이 '규범'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의 태도가 행동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 이론은 주로 소비자의 구매행동 장면에서 가장 많이 검증되어 왔으며(e.g., Lee, 1988; Wilson, Mathews, & Harvey, 1975), 정치 분야의 투표행동(e.g., Fishbein 등, 1989)이나 건강 분야의 금연행동(e.g., Fishbein 등, 1978) 등에도 적용되어 왔다. 원래의 합리적 행위 이론에 '행동 통제력의 지각' 변인이 예언변인으로 추가된 Ajzen(1985, 1991)의 계획적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특히 '통제(control)'라는 변인 때문에 건강 분야에 많이 적용되어 오고 있다(e.g., McCaul 등, 1988).

다양한 행동 예언 상황에 적용되고 있는 행동의도 모델은 의식개혁(행동변화를 수반하는 태도 및 신념의 변화)과 같은 문제에도 충분히 유효적절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의식개혁을 필요로 하는 태도가 이 이론에서처럼 '어떤 행동을 하는 것(또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호화혼수를 장만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 또는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행동'에 대한 태도 등이 바로 의식개혁의 대상이 되며,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태도'가 이 모델의 주요 변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모델은 태도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과정에 관한 모델이기 때문에 '행동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의식개혁'을 설명하는데 적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론은 개인의 태도에 더하여 사회적인 규범도 개인의 행동의도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태도변화가 행동변화로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규범 요인이 일종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모델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들 중 본 논문의 맥락에서 특히 흥미로운 것은 문화에 따른 태도요인과 규범요인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Lee[2])(1988)에 의하면 스포츠화의 구매행동 의도를 결정하는데 미국인들은 규범요인(경로계수=.06) 보다 태도요인(경로계수=.84)이 더 큰 영향을 주었던 데 비해, 한국인들은 태도요인(경로계수=.39)보다 규범요인(경로계수=.52)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cf. 이성림, 1993). 그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경우 개인주의 문화가, 한국의 경우 집단주의 문화가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오세철(1986)은 소비자 행동이 아닌 일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서 Fishbein과 Ajzen(1975)의 모델을 반복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규범요인이 미국에서보다는 행동의도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만, 규범 요인이 개인의 태도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세철(1986)의 실험 상황(예: 경제적 투자 상황, 성공이 불투명한 이민 결정 상황, 등)이 규범보다 태도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Fishbein과 Ajzen(1975)의 행동의도 모델을 수정 또는 확장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다(e.g., Ajzen, 1985, 1991; Lee, 1990). 그 중에서 한국의 의식개혁과 문화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Lee(1990)의 유교문화권 모델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

2)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 이 철 교수의 관련 자료 협조에 감사드린다.

고자 한다.

(2) 유교문화권의 행동의도 모델 (Lee, 1990)

Lee(1990)는 구매행동 의도 결정에 미국인들은 태도요인이, 한국인들은 규범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Lee, 1988)를 토대로 하여, 원래의 행동의도 모델을 유교문화권에 잘 들어맞도록 수정하였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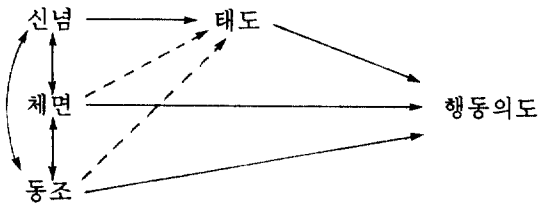


그림 2. Lee(1990)의 유교문화권 행동의도 모델 (점선 화살표는 본 논문에서 생략하려고 하는 경로)

유교문화권 행동의도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주관적 규범을 체면유지(face saving) 압력과 집단동조(group conformity) 압력으로 대치시켰다는 점이다. 체면유지 압력은 사회적 지위나 富, 또는 권력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집단동조 압력은 집단 규범이 어느 정도 합의성(consensus)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느 정도 집단지향적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Lee, 1990, p.36). 이 두 가지는 모두 유교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압력(social pressure)으로서, '남을 의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Lee(1990)는 이 두 요인을 포함시킨 유교문화권 모델이 원래의 모델보다 한국인의 구매행동을 더 잘 설명함을 증명하였다. 그는 또 남의 눈에 잘 띄는(socially visible) 물건(예: 시계)의 구매행동에는 체면유지 압력이, 그리고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물건(예: 세제)의 구매행동에는 집단동조 압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였다.

지금까지는 이 수정된 모델이 소비자의 구매행동에 주로 적용되어 왔으나(e.g., Lee, 1988, 1990), 본 논문에서는 유교문화권의 행동의도 모델에서 내세운 사회적 압력 요인들(체면유지 압력과 집단동조 압력)이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이라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체면 때문에 자식의 결혼식 때 어쩔 수 없이 호화혼수를 장만하는 일이라든지 명절 때 부담스러운 선물을 주고받는 일, 또는 집단동조 때문에 (즉,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의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일 등은 개개인의 신념 또는 의식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분위기 또는 사회적 압력 때문에 행해지는 행동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정한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신념이나 태도의 변화를 위한 노력 뿐만 아니라 변화된 신념의 실천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까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체면유지 압력과 집단동조 압력의 문화적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 의식개혁 문제에 이 모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와같이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을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3) 체면유지 압력과 집단동조 압력의 문화적 근원

우리나라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유교문화와 집단주의(서양의 개인주의와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

니지만, 한국문화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1) 체면유지 압력은 유교문화에, 그리고 (2) 집단동조 압력은 집단주의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Hofstede(1991)가 말하는 문화의 발현 수준을 가장 피상적인 것부터 열거해 보면 상징, 영웅, 의식(rituals), 및 가치이다. 이 중에서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관행(practices)'으로 묶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 예절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유교주의 가치는 체면유지를 위한 호화로운 의식으로 관행화되고, (2) 개인을 집단과 독립된 존재로 보기보다 집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집단주의 가치는 개인의 태도에 반하는 집단동조의 관행을 낳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한다.

1) 유교문화와 체면유지 압력. 조선시대의 유교가 한국인의 성격 내지는 국민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 왔다(예: 오세철, 1986; 차재호, 1994). 유교에서 특히 상하 위계질서를 존중하고 복종을 강조하는 점은 곧 권위주의적 성격과 연결이 된다. 유교인의 이상적인 형태와 권위주의적 성격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오세철, 1986 참조), 신분, 질서, 예절, 및 위계 등을 강조하는 유교문화는 근대적인 평등주의와 명백히 대비되는 권위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희섭(1994)은 권위주의-평등주의 가치차원을 "인간관계에서의 서열성을 강조하는 정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전통적 가치지향으로서의 권위주의가 인간관계에서의 서열성의 강조로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p.106). 그는 또 "유교윤리에서 규정한 기본적 인간관계에서의 오륜(五倫)을 보더라도, 군신유의 · 부자유친 · 부부유별 · 장유유서·붕우유신 등에서 그 서열적·위계적 성격은 명백"하다고 강조한다(p.107). 즉, 서열을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전통이 권위주의 가치지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편,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체면은 타인의식적이고 신분지향적인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인 반면 자기지향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개인주의적 미국사회에서는 전통적 한국사회에서보다 덜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p.155). 권위주의적 사회는 Hofstede(1991)가 말하는 문화의 네 차원들(권력거리, 집단주의-개인주의, 불확실성 회피, 및 남성성-여성성 차원) 중에서 '권력거리(power distance)가 큰' 사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권력거리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불평등한 권력 분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권력거리가 큰 유교주의 사회에서는 양반과 상민 간의 권력 차이를 (특히 상민의 입장에서) 당연시하며 받아들인다. 신하는 임금에게 당연히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사회일수록 (특히 웃사람의 입장에서) 체면이 중요해진다(cf. 최상진 · 유승엽, 1992).

요약하면, '유교문화 —> 권위주의 —> 체면유지 압력'이라는 도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최근에 성영신(1994)이 구분한 과소비의 유형 중 '체면소비'와 '과시적 소비'의 경우도 그 문화적 근원을 더듬어 본다면 이와 같은 유교문화와 권위주의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2) 집단주의 문화와 동조 압력.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집단주의-개인주의로 양분하는 관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널리 알려져 있다(e.g., 한규석, 1991; Triandis, 1989). 이와 같은 이분법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

으나(e.g., Schwartz, 1990), 아직은 집단주의-개인주의 문화의 분류는 많은 문화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틀로 간주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은 흔히 일본·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집단주의 국가로 분류된다(e.g., Hofstede, 1991; Triandis, 1989). 임희섭(1994)은 집단주의(집합주의)-개인주의 가치차원을 "집단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의 차이"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p.107). Hofstede(1991)는 개인주의를 "개인들 간의 구속력이 느슨한 사회"로, 집단주의를 "태어날 때부터 줄곧 개인들이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내집단에 융합되어 있어서 일생 동안 내집단에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바치는 댓가로 그 집단이 개인들을 계속 보호해 주는 사회"로 정의한다(p.51).

김대환(1979)은 집단주의 국가로서의 한국 국민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우리들의 전통적인 생활윤리와 규범은 개인 중심이라기보다 가족 중심, 그리고 공동체 중심이다… '나'라는 감정보다 '우리들'이라는 감정이 우선하게 되었다… 그러기에 자아의 주장도 부족하였고 자의식도 결여됨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자아를 바탕한 양심이 되기보다 오히려 외부의 눈, 타인의 평가, 사회의 규제를 더 강하게 의식하기에 이르렀다"(pp.50-51). 한국과 같은 집단주의 문화의 국민들은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즉 외부의 눈이나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들' 속에서 이탈자가 되기를 두려워 하는 마음 때문에 '동조' 압력을 느끼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차재호(1994)가 김대환(1979)의 논문을 인용하며 '자기의사를 당당히 표시하지 못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할 행동특징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영신(1994)의 과소비 유형 중 '동조소비'와 '광고의존 소비'도 넓은 의미의 '동조 압력'과 같은 심리적 기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집단주의 문화는 유교문화(내지는 권위주의)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Hofstede(1991)는 문화의 권력거리 차원과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을 각각 수평축과 수직축으로 하는 평면 위에 그가 조사한 50여개국을 배열해 보았다. 그 결과, 불과 4-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거의 일직선 모양으로 배열되었다. 즉, 권력거리가 큰 문화일수록(더 권위주의적인 문화일수록) 집단주의적인 경향이 더 강했으며, 권력거리가 작은 문화일수록(덜 권위주의적인 문화일수록)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더 강했다(p.54). 예상대로 한국은 집단주의이면서 권력거리가 큰 나라에 속했다.

그러나 임희섭(1994)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한국 대학생들의 가치는 (1)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하고 있으면서도, (2) 적어도 서열적 인간관계에서의 '예절'의 수준에서는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상당히 유지하고 있었다. 임희섭(1994)은 또한 권위주의-평등주의 차원에서는 권위주의적일수록, 집단주의-개인주의 차원에서는 집단주의적일수록 '동조형' 적응을 많이 함을 보여 주었다; 반대로 평등주의적, 개인주의적일수록 '저항형' 적응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130).

요컨대, 문화가 집단주의적일수록 동조 압력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문화의 개인들은 '자기(self)'라는 개념 속에 원초적 집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다(e.g., Markus & Kitayama, 1991). 집단주의적인 사회일수록 집단의 생각을 자기 자신의 생각과 동일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히 집단의 생각 쪽으로 동조할 확률도 높아질

것이다. Triandis(1989)의 표현을 빌린다면 집단주의 사회일수록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의 표집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집단자아존중(collective self-esteem)의 개념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e.g., 김혜숙, 1994; Crocker & Luhtanen, 1990). 즉, 집단주의 문화일수록 개인의 집단자아존중감이 높을 가능성이 많다. 최상진과 유승엽(1992)이 정의한 '체면'도 "외현화 또는 표출화된 자기"로서 사회적 자존심에 해당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체면유지 압력과 동조 압력이 모두 '사회적 자기(social self)'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태도 —> 행동'의 직접적인 연결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끝으로 언급해 둘 것은 유교문화, 권위주의, 및 집단주의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체면유지 압력은 유교문화(그리고 권위주의 가치)에만, 동조 압력은 집단주의 문화에만 그 근원이 있다고 엄격하게 양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교문화와 집단주의 문화가 상관되어 있는 만큼 체면유지 압력과 동조 압력도 상관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체면유지 압력과 동조 압력이 모두 유교문화와 집단주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비율을 따져 본다면 체면유지 압력은 유교문화로, 동조 압력은 집단주의 문화로 더 많이 설명된다는 뜻이다.

(4) 실증적 자료: 호화혼수와 촌지 문제에 관하여

의식개혁의 대상이 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과소비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호화혼수 문제(cf. 성영신, 1994), 그리고 고쳐야 할 교육계 비리 중의 하나인 촌지 문제(cf. 한성열, 1994)에 앞서 제시한 유교문화권의 행동의도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는 Lee(1990)의 모델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 그림 2에서 두 개의 점선 화살표를 제거한 모델, 즉 '체면—>태도' 및 '동조—>태도' 경로를 생략한 모델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단순화된 모델의 이론적 의미는 (체면유지 압력과 집단동조 압력이 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체면유지 압력과 집단동조 압력이 태도의 매개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체면이나 동조 때문에 자기 태도와는 달리 행동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호화혼수 문제의 경우에는 동조보다 체면이, 그리고 촌지 문제의 경우에는 체면보다 동조가 행동의도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호화혼수의 경우에는 내용보다 형식을 중요시하는 유교문화의 잔재로 인해 체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고, 촌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행동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집단주의적 사고 때문에 동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남의 눈에 띄는 물건의 구매에는 체면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물건의 구매에는 동조가 더 큰 역할을 한다는 주장(Lee, 1990)과도 일치하는 생각이다. 혼수는 남의 눈에 띄는 소비이고 촌지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소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모델의 대략적인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성인들 대상의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

피조사자.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고 있던 경찰

대학교 1학년생 53명이 예비조사에 응했으며(1994년 6월),[3] 국민학생 자녀를 둔 남녀 성인들 135명과 대학(원)생 자녀를 둔 남녀 성인들 141명이 본조사에 응했다(1994년 9월).[4]

본조사의 조사원은 서울대, 연세대, 및 한양대에서 심리측정과 사회심리학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었다.[5]

표 1. 질문지의 문항 내용

변 인	문 항 내 용
체 면	1.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하지 않으면 체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2.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해야 집안의 위신이 선다. 3. 무슨 일로든 체면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동 조	4. 결혼 때 모두들 다이아 반지를 교환하는데 내 자식만 금반지를 교환한다면 마음이 꺼림칙할 것이다. 5. 남들 다 하는 예단을 생략하면 왠지 불안할 것이다. 6. 무슨 일이든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좋다.
신 념	7.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하는 것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8.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하는 것은 사치풍조를 조장한다고 생각한다. 9.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하는 것은 신혼생활을 안락하게 해 준다고 생각한다.
태 도	10.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1.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12.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다.
불확실성 회피 자기효능감	13. 새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흥미롭다기보다는 불안하다. 14. 나 한 사람이라도 혼수를 간소하게 한다면 호화혼수 풍토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행동의도	15.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내 자식은 혼수를 고급스럽게 장만해 주려고 한다.

주. 촌지 문제의 경우도 기본적인 질문의 틀은 마찬가지였음. 문항 8-9, 11-14는 본조사에만 포함시켰음.

질문지. 앞뒤 2페이지로 된 간단한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여 예비조사는 집단으로, 본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내용은 표 1에 나와 있다. 응답 방법은 호화혼수 문제와 촌지 문제 각각에 대해, 행동의도 모델의 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예비조사시 9문항, 본조사시 15문항)마다 반대/찬성하는 정도를 -4(절대 반대)부터 +4(절대 찬성)까지의 9점 척도 점수로 표시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

1) 호화혼수 문제. 호화혼수 문제의 경우 모

3) 53명 모두 1학년 신입생들이었으므로,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타대학과의 차이점(예: 권위주의적 성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간주됨.

4) 촌지 문제와 호화혼수 문제에 관한 이 두 부류 성인들의 응답 결과에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전체 성인들 276명의 응답을 문제 별로 분석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5) 조사자료를 수집해 준 서울대, 연세대, 및 한양대 대학원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델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들이 그림 3에 나와 있다(괄호 안의 수치는 예비조사시의 상관계수). 이 그림의 상관계수를 구할 때에는 각 변인(체면, 동조, 신념, 태도)별로 3개씩의 문항에 대한 응답 자료들을 평균한 다음에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대학생 대상의 예비조사 자료(N=53)를 LISREL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체면—>태도' 경로와 '동조—>태도' 경로를 포함시킨 원래의 유교문화권 모델(Lee, 1990)과 이 두 경로를 생략한 단순화된 모델이 거의 똑같은 부합치들을 보였다.[6] 체면과 동조에서 태도로 이어지는 두 경로를 생략해도 모델의 부합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모델의 "간명성(parsimony)"이란 측면에서 볼 때(cf. 이순묵, 1990) 두 경로를 뺀 단순화된 모델이 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인 대상 본조사 자료(N=276)를 토대로 한 단순화된 모델의 LISREL 분석 결과에서도 기초부합치가 .993, 조정부합치가 .988로 나타나, 단순화된 모델이 좋은 모델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림 3의 단순상관계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호화혼수 문제의 경우 동조(γ =.168)보다 체면(γ =.539)이 행동의도에 더 큰 '직접효과(direct effect)'를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도 예비조사와 본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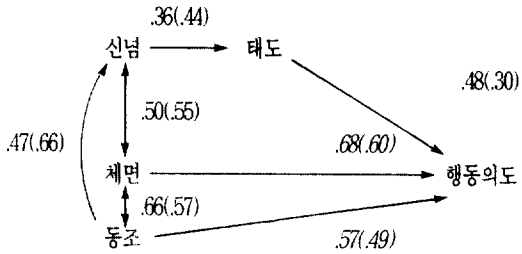


그림 3. 호화혼수 문제의 경우 이론변인들간 단순상관계수 (괄호 안의 수치는 예비조사시의 상관계수)

2) 촌지 문제. 그림 4(괄호 안은 예비조사 결과)는 촌지 문제에 관한 모델 변인들 간의 단순상관계수들을 보여 준다. LISREL 프로그램을 이용한 예비조사 자료(대학생 N=53)의 분석 결과, '체면—>태도' 경로와 '동조—>태도' 경로를 포함한 Lee(1990)의 유교문화권 모델과 이 두 경로를 뺀 단순화된 모델의 부합치들이 거의 비슷했다.[7] 그러므로 촌지 문제의 경우에도 단순화된 모델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본조사 자료(성인 N=276)의 LISREL 분석에서도 기초부합치가 .978, 조정부합치가 .965로 나타나, 단순화된 모델이 좋은 모델임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그리고 촌지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체면(γ =.023)보다 동조(γ =.310)가 행동의도에 더 큰 직접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도 역시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6) 원래 모델과 단순화된 모델의 기초부합치(goodness of fit index, GFI)는 모두 .986이었으며, 조정부합치는 전자가 .960, 후자가 .964였다. 카이자승치는 전자가 23.01 (df=16, p=.113), 후자가 22.60 (df=18, p=.207)로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7) 두 경로를 포함한 큰 모델의 기초부합치(GFI)와 조정부합치(AGFI)는 각각 .979와 .941이었으며, 두 경로를 생략한 작은 모델의 GFI와 AGFI는 각각 .978과 .944였다. 두 모델의 카이자승치는 각각 25.58 (df=16, p=.060)과 27.51 (df=18, p=.070)로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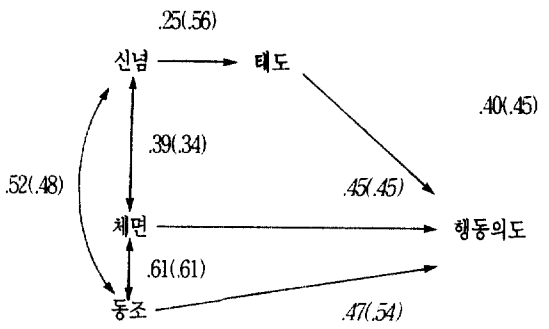


그림 4. 촌지 문제의 경우 이론변인들 간 단순상관계수
(괄호 안의 수치는 예비조사시의 상관계수)

논 의

호화혼수와 촌지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1) 체면과 동조가 태도의 매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동의도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2) 호화혼수 문제에서는 동조보다 체면이, 촌지 문제에서는 체면보다 동조가 행동의도 결정에 상대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호화혼수와 촌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호화혼수는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촌지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조사 자료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조사의 주요 목적이 호화혼수와 촌지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체면'과 '동조'라는 사회문화적인 압력이 과연 어떤 문제행동의 변화(즉, 개혁)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 보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체면'과 '동조'라는 문화적 요인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호화혼수'나 '촌지'라는 문제 중심의 행동의도 모델을 만든다면 물론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복잡한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호화혼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에는 체면과 동조 이외에도 내 자식이 남자냐 여자냐, 사돈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요구가 무엇이냐(즉, 어떤 사돈댁을 만났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촌지 문제의 경우도 체면과 동조 이외에 자녀의 담임선생님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촌지를 요구하는지(즉, 어떤 담임선생님을 만났는지), 자녀가 학급에서 간부직을 맡았는지 하는 것과 같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행동의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서양과 같은 '夫婦중심' 문화가 아닌 '父子중심' 문화를 지닌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나는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자식들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해 주어야' 부모의 도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며, '내 자식만은 남보다 뛰어나기를 (최소한 남보다 뒤쳐지지는 않기를)' 바라는 가족이기주의적인 생각도 지니고 있다(cf. 한성열, 1994; Hsu, 1972). 호화혼수와 촌지 문제는 모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호화혼수나 촌지 문제를 가지고 '문제 중심'의 행동의도 모델을 만든다면 분명히 이와 같은 요인들이 행동의도 결정에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부모의 도리'나 '가족이기주의'적인 생각도 유교문화와 집단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시정되어야 할 '문화적 요인'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4. 성격변인들의 매개효과

체면이나 동조와 같은 사회적 압력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는 것은 물론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과 더 적게 느끼는 사람들 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또는 독단주의(*dogmatism*) 경향이 높을수록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큼(즉, 잘 변하지 않음)을 보여 준 연구들이 있다. Rokeach(1954, 1956, 1960)는 Adorno 등(1950)의 권위주의와 상관관계가 높은 독단주의 척도를 만들었다. 그에 의하면 독단적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 (1) 신념과 비신념(자기가 반대하는 명제들) 간의 구분이 분명하며, 비신념들 간의 구분은 거의 없다; (2) 비관주의, 공포감, 및 권력과 지위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리고 (3) 권위를 신봉하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것을 참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독단적 사람들은 흔히 개방적인 마음(open mind)과 반대되는 폐쇄적인 마음(closed mind)을 지니고 있다고 분류된다 (Rokeach, 1960; Eagly & Chaken, 1993, p.578).

이런 사람들은 한 마디로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왜냐 하면, 행동변화까지 연결되는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1) 태도와 신념을 변화시키면서 (2) 체면과 동조 압력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권위주의적 또는 독단적인 사람들은 (1) 태도와 신념은 잘 변화시키지 않으려 하면서(e.g., Palmer & Kalin, 1985; Temkin, 1987), (2) 체면유지 압력은 많이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적 독단적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동조 압력은 더 적게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현상유지 쪽의 동조가 아닌) 개혁 쪽으로의 동조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 개혁 쪽으로의 변화는 역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권력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요구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왜냐 하면, 독단적인 사람은 권위있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은 잘 따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e.g., Vidulich & Kaiman, 1961). 권위주의 의식이 몸에 밴 우리나라의 관료들도 청와대에서 먼저 '칼국수' 대접을 시작하자 점차 검소한 생활양식을 따라가고자 하는 모양새를 (최소한 겉으로는)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권위주의적인 관료들이 겉으로만 검소한 모습을 보이고 속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다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은 검소한 웃사람에게 단순히 동조함으로써 행동변화만을 가져왔을 뿐 태도나 신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의식개혁은 신념변화만으로도 부족하고 행동변화만으로도 불충분하며, 신념변화와 행동변화가 모두 일어나야만 진정한 의식개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와 유사한 개인차 변인의 하나로 불확실성 지향성*(uncertainty-orientation)*을 들 수 있다(Sorrentino & Short, 1986; Brouwers & Sorrentino, 1993). 이 개념의 근원은 동기와 발달에 관한 Kagan(1972)의 논문에서 나왔다. Kagan(1972)은 불확실성을 해결하려는 동기가 행동의 주요 결정인자라고 하였는데, Sorrentino와 Short(1986)는 불확실성 해결 욕구의 개인차에 주안점을 두고 불확실성 지향성 개념을 발전시켰다. Sorrentino와 Short(1986)에 의하면, 불확실성 지향적인(uncertainty-oriented) 사람이란 환경 속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상황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며, 확실성 지향적인(certainty-oriented) 사람이란 자기자신과 환경 속에서 불확실성이 없는 확실한 상황(예: 친숙한 상황)에 집착하는 사람을 뜻한다(Sorrentino & Short, 1986, p.382). 전자는 Rokeach(1960)의 "개방적인" 유형과, 후자는 Rokeach의 "폐쇄적인" 유형과 유사한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확실성 지향적인 사람이 더 권위주의적이고 더 독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확실성 지향적인 사람이 (독단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위 낮은 사람보다 지위 높은 사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Sorrentino, Bobocel, Gitta, Olson, & Hewitt, 1988).

권위주의나 독단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불확실성 지향성이 낮을수록 체면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구습에 얽매이는 경향이 더 높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본 논문의 일부로서 호화혼수와 촌지에 관한 본조사 자료를 모을 때 추가했던 문항들 중에 '불확실성 회피,' 즉 '낮은 불확실성 지향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있었다 ("새로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흥미롭다기보다는 불안하다"). 이 문항은 호화혼수와 촌지 문제 모두에서 체면 및 동조와 유의미한 정적(positive)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불확실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체면과 동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와 반대로, 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체면 및 동조와 부적(negative) 상관관계가 있었다(cf. 김양희, 1994; Bandura, 1977). 즉, "나 한 사람이라도 혼수를 간소하게 한다면(촌지를 주지 않는다면) 호화혼수 풍토가(촌지를 주는 풍토가)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경향이 강할수록 체면과 동조를 덜 중요시하였으며, 따라서 호화혼수를 하거나 촌지를 주려고 하는 행동의도도 더 낮았다.

개개인의 성격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나 범주에 따라서도 문화적 압력을 더 많이 느끼는 부류(계층 또는 범주)와 더 적게 느끼는 부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면유지 압력은 구세대가, 동조 압력은 신세대가 더 많이 느낄 수도 있고, 남자는 체면유지 압력을, 여자는 동조 압력을 더 많이 느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계층별로 느껴지는 문화적 압력의 종류와 그 장단점을 구분할 수 있다면, 그 압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이면서 구세대보다는 신세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요즈음의 젊은 엄마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재교육을 시키거나 학원 한두 군데 쯤은 필수적으로 다녀야 한다고 아이들을 혹사시키는 것은 남들 다 하는 것을 안하면 왠지 불안하게 느끼는 동조 압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 동조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사례와 동조하는 사람들의 실패사례를 강조하는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실제로 동조하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혹은 동조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도록) 학교교육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사회 전체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동조 압력이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다. 복부인들의 부동산 투기 바람도 (동조할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일종의 동조 심리가 작용한 결과였다고 볼 때, 토초세(토지 초과이득세)의 실시로 투기자들의 손해를 극대화시켜 부동산 투기 바람을 한동안 잠재웠던 것도 이와 유사한 과정으로 개혁에 성공했던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민행동의 통제는 물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그 어려움이 있다.

5. 결론: 의식개혁과 문화혁신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방해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가운데, 특히 체면유지(face saving) 압력과 집단동조

(group conformity) 압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체면유지 압력의 근원은 유교문화에서, 집단동조 압력의 근원은 집단주의 문화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도 이 두 문화특성이 서로 상관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대학생들과 성인들 대상의 조사 자료에서 얻은 결과는 (1) 체면과 동조 때문에 생각과는 다른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2) 호화혼수 문제에서는 동조보다 체면이, 촌지 문제에서는 체면보다 동조가 행동의도 결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권위주의나 독단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불확실성 지향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체면을 중요시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 하여 구습에 얽매이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렵지만, 이런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의외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권장할만 하다. 체면유지 압력을 많이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 구세대나 남성들 대상의 개혁은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체면유지 압력보다는 동조 압력에 약할 것으로 생각되는 여성들이나 신세대 대상의 의식개혁은 개혁 대상이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동조할 때 손해를 보고 동조하지 않을 때 이익을 얻도록 제도나 법규를 바꿈으로써 사회구조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개개인의 성격이 모여서 국민성이 되고, 이 국민성이 바로 국가의 문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와 개개인의 성격 간에도 서로 관련성이 있다. 국민성과 국가문화 이면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심층적인 '가치(value)'가 깔려 있다. 권위주의적인 개인이 더 많은 나라일수록 권력거리(power distance)가 큰 문화일 가능성이 많고, 확실성 지향적인 개인이 더 많은 나라일수록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경향이 더 높은 문화일 가능성이 많다. 바로 이 개념이 Hofstede(1991)가 말하는 문화의 권력거리 차원과 불확실성 회피 차원이다. 어떤 문화가 더 좋고 나쁜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권력거리가 크고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높을수록 (특히 아랫사람이) 자기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 더 큰 제약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본 논문의 서두에서 말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요즈음 신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Hofstede(1991)의 분석에서 한국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범주에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소수의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압력에 밀려 자신있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거나 웃사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현상이 한국의 문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의식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의식 변화와 함께 문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유교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가 단점만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문화나 그렇듯이 고쳐야 할 점과 유지해야 할 점을 모두 지니고 있다. 차재호(1994)는 외국인 관찰자료에 바탕을 둔 이전 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국민성 중에서 시정되어야 할 행동특성들과 조장되어야 할 행동특성들을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행동특성들은 (1) 자기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 (2) 의존적 성향, (3) 사생활의 침범, (4) 감정과 의욕의 억제, (5) 공사혼동, (6) 준법정신의 결여, (7) 장기적 결심을 못하는 것, (8) 권위주의, (9) 창조성의 결여, (10) 비합리적 사고, 및 (11) 기술천시이며, 조장되어야 할 행동특성들은 (1) 정겨움, (2) 높

은 교육열과 향학열, (3) 경로사상, 및 (4) 예의이다 (차재호, 1994, pp.161-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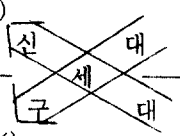
임희섭(199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각각의 바람직한 가치요소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요소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재구성하여 표 2에 제시한다.

표 2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애석하게도 우리의 문화가치 중에서 유지되어야 할 것들(예: 부모에 대한 효성)은 사라져 가고 있고 사라져야 할 것들(예: 권위주의)은 오히려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서양의 문화 중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들(예: 합리적인 생활태도)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들(예: 물질주의)만을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문화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구세대가 노력해야 할 방향과 신세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구분된다. 즉, 구세대는 전통문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요소들(예: 권위주의, 비합리적 사고방식, 허례허식)을 버리고 외래문화의 바람직한 가치요소들(예: 합리적인 생활태도, 공사의 구분)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신세대는 외래문화의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요소들(예: 윤리적 타락, 물

표 2. 전통문화와 외래문화의 바람직한 가치요소와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요소

	바람직한 가치요소	바람직하지 못한 가치요소
전통 문화	부모에 대한 효성 (31.9%)	의존성, 사대주의 (17.1%)
	상부상조의 정신 (20.6%)	권위주의 (16.6%)
	예의범절 (16.4%)	비합리적 사고방식 (15.3%)
	웃어른에 대한 존경 (12.1%)	허례허식 (13.6%)
		신분의식 (10.7%)
외래 문화	독립정신과 개척정신 (25.1%)	윤리적 타락 (36.0%)
	합리적인 생활태도 (22.9%)	물질주의 (31.9%)
	개인의 존중 (16.8%)	이기주의 (25.8%)
	준법성, 공사의 구분 (13.4%)	



주. 임희섭(1994)의 표 17-20 (pp.131-133)에서 응답자의 10% 이상이 지적한 항목들만 간추려 재구성하였음. 가운데 교차하는 두 개의 큰 화살표는 우리가 세대별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의미함.

질주의, 이기주의)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전통문화의 바람직한 가치요소들(예: 부모에 대한 효성, 상부상조의 정신)에 눈을 돌려야 하겠다.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룬 체면과 동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세대는 체면에의 집착을 버리고 신세대는 더 이상 유행에 무턱대고 동조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화혁신을 동반하는 의식개혁은 바람직한 생각들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대환 (1979). 사회학적 측면에서 본 국민성. **국민윤리연구**, 8, 45-55.

김양희 (1994). 도시주민의 환경의식과 행동에 대한 조사연구. **韓國心理學會誌:社會**, 8(1), 85-102.

김창균 (1994. 8. 23.). 항공기사고, 권위주의사회가 더 많다. **조선일보**, p.7.

김혜숙 (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8(1), 103-116.

나은영 (1994). 태도 및 태도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 1985-1994.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8(2), 3-33.

성영신 (1994). 한국인의 그릇된 물질주의와 과소비 유형. **한국심리학회 '94 춘계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pp.97-118.

오세철 (1986). **문화와 사회심리이론: 조직행동 이론의 재구성**. 서울: 박영사.

이성림 (1993). **자기의식에 따른 태도요인과 규범요인의 상대적 중요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순묵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임희섭 (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

차재호 (1994). **문화설계의 심리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상진 · 유승엽 (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6(2), 137-157.

한규석 (1991).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韓國心理學會誌**, 10(1), 1-19.

한성열 (1994). 한국문화와 그릇된 교육의식 및 관행. **한국심리학회 '94 춘계심포지움 발표 논문집**, pp.121-132.

Adorno, T.W., Frenkel-Brunswik, E., Levinson, D.J., & Sanford, R.N.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Ajzen, I. (1985). From intentions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n (Ed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pp.11-39). New York: Springer-Verlag.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 179-211.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Ajzen, I., & Timko, C. (1986). Correspondence between health attitudes and behavior.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7*, 259-176.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rouwers, M.C., & Sorrentino, R.M. (1993). Uncertainty orientation and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The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health compli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1), 102-112.

Crocker, J., & Luhtanen,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5-66.

Eagly, A.H., & Chaiken, S. (1993). *The psychology of attitudes*. Orlando, FL: Harcourt Brace Jovanovich.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Fishbein, M., Loken, B., Chung, J.K., & Roberts, S. (1978). *Smoking behavior among college women.* Report prepared for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University of Illinois.

Fishbein, M., Middlestadt, S.E., & Chung, J.K.(1989). Predicting participation and choice: First-time voters in U.S. partisan elections. In S. Kraus & R. Perloff (Eds.), *Mass media and political thought: An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pp. 65-82). New York: Sage.

Hofstede, G. (1991) [차재호 · 나은영 공역, 1995].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Hill.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學志社].

Hsu, F.L.K. (1972). Kinship and ways of life: An exploration. In F.L.K. Hsu (Ed.), *Psychological Anthropology.* Cambridge, MA: Schenkman Publishing Company.

LaPiere, R.T. (1934). Attitudes vs. actions. *Social Forces, 13,* 230-237.

Lee, C. (1988). *Cross-cultural validity of the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 model: Culture-bound or culture-free?*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

Lee, C. (1990). Modifying an American consumer behavior model for consumers in Confucian culture: The case of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 model. *Journal of International Consumer Marketing, 3*(1), 27-50.

Markus, H.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McCaul, K.D., O'Neill, H.K., & Glasgow, R.E. (1988). Predicting the performance of dental hygiene behaviors: An examination of the Fishbein and Ajzen model and self-efficacy expectation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8*(2), 114-128.

McGuire, W.J. (1986). The vicissitudes of attitudes and similar representational constructs in twentieth century psycholo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89-130.

Palmer, D.L., & Kalin, R. (1985). Dogmatic responses to belief dissimilarity in the "bogus stranger"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71-179.

Rokeach, M. (1954). The nature and meaning of dogmatism. *Psychological Review, 61,* 194-204.

Rokeach, M. (1956). Political and religious dogmatism: An alternative to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18, Whole No. 425).

Rokeach, M. (1960). *The open and closed mind: Investigations into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and personality systems.* New York: Basic Books.

Rosenberg, M.J., & Hovland, C.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 In C.I. Hovland & M.J. Rosenberg (Eds.), *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ch.1, pp.1-14).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Schwartz, S.H. (1990). Individualism-collectivism: Critique and proposed refinem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1*(2), 139-157.

Sorrentino, R.M., & Short, J.C. (1986). Uncertainty orientation, motivation, and cognition. In R.M. Sorrentino & E.T. Higgins (Eds.), *The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pp.379-403). New York: Guilford Press.

Temkin, B. (1987). Attitude change, dogmatism, and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The case of the State Commission of Inquiry on the massacres at Sabra and Shatila. *Political psychology, 8*, 21-33.

Triandis, H.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3), 506-520.

Vidulich, R.N., & Kaiman, I.P. (1961). The effects of information source status and dogmatism upon conformity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 639-642.

Wilson, D.T., Mathews, H.L., & Harvey, J.W. (1975). An empirical test of the Fishbein behavioral intention model.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 39-48.

Cultural Impediments in Mind Reformation Processes: Face-Saving and Conformity

Eun-Yeong N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ocial pressure or cultural atmosphere may cause undesirable behavior even under desirable attitudes. This article dealt with face-saving and group conformity pressure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which can mislead behavior, in line with a modified Confucian model of behavioral intention. Face-saving pressure is based on Confucian culture, and group conformity pressure on collectivist culture. The present study compared Korean college students' and adults' empirical data concerning luxurious wedding preparations and bribes. It was implied that "top-down reformation," characterized by high status persons' demonstration of desirable behavior and low status persons' modeling of i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old generations and males who tend to be authoritarian and to stress face-saving. As for young generations and females who are susceptible to conformit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change social structures to make conforming people get some loss. The change of undesirable cultural factors as well as that of individuals' beliefs is necessary for the explicit expression of desirable behavior based on reformed mind. Specifically in Korea, it was recommended that old generations had better accept the desirable values of Western culture(e.g., reasonable life style, distinction between personal and public affairs), discarding undesirable values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e.g., authoritarianism, unreasonable life style, emphasis on forms rather than contents). Meanwhile, young generations were recommended to try to discard undesirable values of Western culture(e.g., prodigality, materialism, egoism) and instead try to pursuit desirable values of traditional Korean culture(e.g., filial piety, mutual aid).